

도쓰이 종유동

도쓰이 종유동은 2억 5,000만 년 이상 전에 형성된 귀중한 동굴로 가까이서 종유석을 감상할 수 있는 신비로운 땅속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도쓰이 종유동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가면 모양과 크기가 다른 종유석과 석순이 있는 동굴이 나타나고, 천장, 지면, 벽면에서 뻗어있는 칼사이트(방해석)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는 침식과 퇴적광상의 산물입니다.

칼사이트(방해석)는 흰색을 띠는데 대부분 오렌지색, 빨간색, 검은색 등의 색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이 칼사이트(방해석)에 조명을 비추어 방해석의 세세한 부분과 색감을 돋보이게 합니다. 지질학자에 따르면 지표 식생과 토양에 함유된 미네랄, 때로는 산성의 영향으로 색이 물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굴은 전체 길이가 100m 정도이며, 몸을 구부리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은 길로 되어있습니다. 동굴 내부는 6 구획으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이미지와 연관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 터널(*the Crab Tunnel*)’에서는 게처럼 쪼그리고 앉아 옆으로 움직이며 그 다음의 ‘바늘 천장 방(*the Needle Ceiling Chamber*)’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밖에 ‘벌집 바위(*Bee’s Nest Rock*)’는 육각형의 움푹 파인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등 특징 있는 동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유동 입구는 20세기 초 석회암 채굴 작업 중에 산허리에 파인 간도에 있는데, 역사적인 근대산업유산이라는 배경도 있습니다. 당시 석회는 건축재와 비료로 사용되었으나, 도쓰이 종유동이 발견되면서 채굴은 끝을 맺었습니다.

도쓰이 종유동을 견학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말, 공휴일, 여름 성수기 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굴 입구까지 가는 대중교통은 없으며, 종유동까지 가는 도로는 대단히 좁습니다.